2003년 인쇄문화상 수상자 확정

경영관리부문
이연지 홍일문화인쇄 사장

기술부문
이창규 화성프린원 부사장

특별부문
김종벽 청주고인쇄박물관 관장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인쇄문화 및 인쇄기술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쇄인을 매년 발굴해 시상하고 있는 2003년도 인쇄문화상(경영관리부문, 기술부문, 특별부문) 수상자가 확정됐다.

오는 9월3일 오후 5시 서교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하게 될 인쇄문화상 경영관리부문에는 이연지 홍일문화인쇄(주) 사장이, 기술부문에는 이창규 화성프린원 부사장이, 특별부문에는 김종벽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이 각각 선정됐다.

또 직지상에는 문동실 백마문화인쇄사 기장과 한상대 프린트프러스㈜ 전무이사가 선정됐다.

이연지 홍일문화인쇄(주) 사장은 198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 우리나라 최고의 캘린더 전문 생산업체로 발돋움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에 캘린더를 수출, 우리나라의 인쇄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농어촌지역과 해외 동포들에게 캘린더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술대학과의 산학연계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했다.

이창규 화성프린원 부사장은 1960년 인쇄업계에 투신한 이래 인쇄기술 개발에 헌신하여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대한인쇄연구소 기술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선진인쇄기술 도입과 자사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김종벽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박물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2001년 국제인쇄출판박람회' 개최를 주관하였으며 직지 유네스코기록문화유산 등재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협과 공동으로 '직지' 홍보 및 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나라 인쇄문화의 위상제고에 공헌했다. 또 서울인쇄조합 홍보관 설립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서울과학관에 고인쇄관을 설치한 바 있다.

한편 올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은 성도GL(대표이사 김상래)에서 협찬한다.

중국인쇄대표단 방한

인협초청, 9월1일 교류회의

한중인쇄협회의 협정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초청으로 중국 인쇄기술협회 대표단이 오는 8월31일부터 6박7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 양국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회의를 연다.

이번 중국 대표단은 무문상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과 김의천 신문출판서 처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중인쇄협회는 1997년 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격년제로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여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한편 2002년에 중국측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자국의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했으며 올 5월에 방문할 계획도 사스의 영향으로 연기되었다가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다.

특수인쇄산업전 준비 순조

9월17일부터 4일간 코엑스

제2회 특수인쇄산업전시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이앤엑스,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특수인쇄산업전(PRINKOR)은 특수인쇄분야의 기술향상과 관련 기기의 판매 및 수출촉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2회를 맞는다.

이번 전시회는 9월17일부터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 인도양관에서 개최되며 소형오프셋인쇄기, 스크린인쇄기기, 프리프레스 장비, 제본기, 인쇄재료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관련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된다. 지난 1회 전시회에는 15개국에서 85개 사가 출품한 바 있다.

인쇄연구소 정기이사회

대한인쇄연구소(이사장 박충일)는 지난 7월22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의안들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인쇄포럼을 개최하여 업계 현안문제 도출과 인쇄기술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쇄업계의 제작 환경과 수주 인쇄물의 입찰 경로에 따른 원가 산정, 입찰 가격간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하여 '입찰가격' 법제화를 모색하는 용역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며 현행의 이사 20명을 4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쇄업 경기' 꽁꽁 얼었다

중앙회조사 제조업중 최하위

인쇄업종의 경기가 중소제조업종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천5백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건강지수(SBHI)를 조사한 결과 8월 지수가 76.3으로 지난해 4월 이 조사를 시작 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100을 밑돌았고, 특히 가방(59.2)과 인쇄(60.4)는 가장 낮은 부류에 속했다.

SBHI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더 많음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하는 경기전망지수로 활용되고 있다. 기협중앙회만 이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 지수를 산출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조사보다 설문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BSI는 생산, 내수, 수출 등의 분야를 놓고 기업들에 △매우 감소 △동일 △매우 증가 등의 세 가지로 물어본다. SBHI는 여기에 다소 감소와 다소 증가란 질문을 넣어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

2003한국전자책산업전 열려

'2003한국전자책산업전'이 8월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eBook으로 여는 디지털세상'이란 주제 아래 소설, 아동도서 등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와 최신 전자책 단말기, 전자책 제작 및 보안 관련 솔루션 프로그램 등이 선보였다.

전시장은 '전자책 체험관', 'PDA시연관', '21세기 미래교실관', '엄마와 함께하는 eBook', '내가 동화속의 주인공' 등 각종 이벤트관으로 분류, 운영됐다. 특히 '21세기 미래교실관'에서는 미래교실의 형태와 다양한 전자교과서, 각종 최첨단 장비에 대한 체험과 다양한 동영상 이용 멀티미디어 수업이 시연됐다.

어린이를 위해 준비한 'Kidsland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또 '모바일관'에서는 소설, 무협지, 만화 등 다양한 전자책 콘텐츠와 각종 모바일 장비를 통한 전자책 서비스가 전시됐다.

한편, 8월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10호에서는 IT업계 및 출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문화컨텐츠 시대의 전자책의 역할과 전자책 시장의 발전 전망'이란 주제로 김경일(김포대학 디지털출판과) 교수, 임순범(숙명여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김현영(인큐브테크) 차장의 관련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YES24 절판된 책 제작

국내 인터넷서점 YES24는 최근 다국적 종합인쇄출판그룹인 Kinko's Korea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국내 인터넷서점 최초로 주문형 출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절판된 도서도 고객이 주문하면 단 1권의 책도 인쇄해 배달해 준다.

POD(Print On Demand) 서비스라 불리는 주문형출판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소량의 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서비스다.

YES24는 "책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2000~3000권을 제작해야만 했다"며 "본 서비스 도입으로 절판된 도서, 비인기 전문서와 학술서, 개인 출판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량 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부 독서의달 표어공모 확정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3년 독서의 달 표어공모 결과 "책 꽂아두면 종이 읽으면 지혜"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수작으로는 "인생역전 한 권의 책으로"와 "책 읽는 작은 여유 마음속의 큰 행복"이, 장려상에는 "독서의 생활화로 묻어나는 삶의 향기"와 "넘어가는 책장하나 쌓이는 평생지식"이 각각 선정됐다.

'전자종이' 미래 10대기술

최근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IT분야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산업판도를 바꿀 10대 기술중에 '전자종이'를 꼽았다.

전자종이는 종이처럼 접거나 둘둘 말 수 있을 정도로 얇고 부드러운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한다. 단순히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뿐 아니라 자유롭게 쓰고 지우며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현재 개발된 전자종이의 두께는 0.3㎜까지 얇아졌다. 이 전자종이는 종이 인쇄물의 장점과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의 장점을 보완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각 사에서 여러 가지 전자종이 생산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제록스사의 팔로알토연구소(PARC)에서 70년대 후반부터 전자종이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후 미국 MIT 연구팀이 지난 97년 'E잉크'라는 회사를 설립, 전자잉크를 상업화를 추진중이다. e잉크사는 올해 연말까지 상용화된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국 한국산아트지에 반덤핑 최종판정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무역협회가 6일 밝혔다. 업체별 덤핑률은 ▲ 무림과 신무림제지 4% ▲ 신호와 한국제지 9% ▲ 한솔제지 16% ▲ 계성과 남한, 풍만제지 31% ▲ 기타 51% 등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중국에 아트지를 수출할때 덤핑률 만큼의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업체는 중국 측에 이의를 공식 제기해 별도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트지는 잡지 표지나 화집, 사진집, 카탈로그 등의 인쇄용지로 사용되는 종이로 올 상반기 동안 국내 제지업체들의 대중 수출물량은 약 2천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173종 선정

문화관광부는 최근 총류·어학 20종, 종교·철학 23종, 사회과학 55종, 순수과학 16종, 기술과학 38종, 예술 20종, 문학 35종, 역사 23종, 문화일반·문화재 20종의 책을 '2003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학술부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추천도서(학술부문)에 대하여는 1종당 940만원 상당(총 23억5천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해외문화원, 해외홍보원 등에 보급할 계획이며, '2003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표시 출판이 허용된다.

문화관광부 추천 우수학술도서 선정·지원사업은 1996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8회째가 되는데 학술출판을 장려하고 건전한 양서 출판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욱 확충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05년 디지털콘텐츠 시장 9조원

정보통신부가 신성장 동력 9대 품목의 하나로 선정, 집중 육성키로 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시장 규모가 오는 2005년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콘텐츠 제작시장 규모는 지난 2001년 말 2조4천억원이었으나 매년 평균 38.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고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 국내 디지털콘텐츠 제작시장은 △디지털 출판 1862억원 △디지털 영상 3743억원 △게임 1조 9472억원 △정보 콘텐츠 6조226억원에 각각 달할 것으로 정통부는 내다봤다. 또한 해외시장도 지난 2001년 614억 달러에서 연평균 28%씩 성장, 오는 2005년에는 165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콘텐츠가 고성장 유망품목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통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은 지난 2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 소관분야별로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진닷컴 출판교류협력 합의

영진닷컴이 북한 인민대학습당과 도서번역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영진닷컴은 최근 한상진 부사장 등 2명이 북한을 방문, 인민대학습당과 남북 민간도서 번역 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진닷컴은 또 향후 몇 년간 수만권의 기술서적을 인민대학습당에 기증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계약에서 영진닷컴이 출판 교류협력과 관련한 남한측의 창구가 되기로 합의했으며, 영진닷컴이 인민대학습당에 번역을 의뢰한 과학기술도서의 판매순익금은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